

“연말정산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세요”

6월2일까지 신고…가산세 면제
누락 공제 ‘환급’ 과다 공제 ‘정정’
과소신고시 세액 10% 부담해야
연300만원 ↑ 기타소득 ‘합산 신고’

올해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거나 과다 공제로 세금을 덜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오는 6월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이나 세액 보장이 가능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며, 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40%를 부담해야 한다.

과다 공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례를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실수 사례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2024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중복공제했을 시 인정 순서는 배우자→직전 연도 공제받은 가족→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 순이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말

(12월3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의료비에 차감하지 않고 지출한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사례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격 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경우,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가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챙겨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간소화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 반영할 수 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받

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2일)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

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로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진 경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수동(종이)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을 누락했거나,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가 있는 경우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한 경우 등이 있다.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0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 물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필수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6월 2일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해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나만의 특별한 ‘성년의 날’ 선물 선봬

향수·잡화·의류 등 품목 ‘다채’

광주신세계는 성년의 날을 맞는 젠지세대 고객에 맞춰 향수는 물론 잡화와 의류 등 여러 품목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살로몬 등 호남에서 유일한 오피라인 매장을 만날 수 있는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에서는 봄·여름에 입기 좋은 의류를 선보인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가 성년의 날을 앞두고 추천하는 상품은 플라워 가디건 티다. 마리떼 여성 플라워 가디건 티는 꽃무늬 패턴에 목과 소매에 레이스 모양이 더해져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킨다.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는 다양한 상황에 연출하기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어 실용적인 성년의 날 선물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본관 5층에서 만날 수 있는 패션 브랜드 ‘레이브’는 성년의 날을 맞는 젠지 고객들에게 헤일리 솔더백을 선보인다.

헤일리 솔더백은 부드러운 감촉의 소가죽이 편안한 착용감을, 잔잔한 크랙 무늬에 은은한 광택이 더해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13인치 노트북까지 수



광주신세계가 성년의 날을 맞는 젠지세대 고객을 위해 향수, 잡화, 의류 등 여러 품목을 마련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납이 가능한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춰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하기 유용하다.

조금 더 특별한 품목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스위스 헤리티지 워치 ‘티쏘’ 제품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본관 3층 티쏘에서는 성년의 날을 맞아 PRX 퀴즈 모델을 추천한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연결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티쏘 PRX 모

델은 빛에 따라 다채롭게 반짝이는 다이얼과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된 브레이슬릿으로 유연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40mm 케이스의 남성용과 25mm 여성용을 함께 만나볼 수 있어 커플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본관 2층에는 성년의 날에 가장 많이 떠오리는 향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광주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사업자 용자 지원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광주은행은 최근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고재덕 광주은행 부행장 및 10개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용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차감과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적립금 운용 계획 수립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은행배인명 신탁연금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내 연금시장을 선도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흡쇼핑에 관광 숙박상품 마케팅

오늘 여수 라마다 등 소개

전라남도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전남 관광·숙박상품’을 흡쇼핑을 통해 마케팅한다.

이번 전남 관광·숙박상품은 여수 라마다 프라자 바이 윈덤과 유타프 마리나 호텔 & 리조트, 고흥 썬밸리리조트로 구성되며, 1박 기준 12만9000원에 조식 뷔페 2

인 이용권이 포함된다.

여수 라마다 프라자 바이 윈덤은 루프탑 집라인과 인피니티폴 등 부대시설 이용 혜택이, 여수 유타프 마리나 호텔&리조트는 주간 요트투어와 아쿠아플라넷 할인권이, 고흥 썬밸리리조트는 해수사우나 이용권 2매가 제공된다.

상품 판매는 16일 오후 11시55분부터 70분간 GS흡쇼핑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오지현 기자

재테크 칼럼

세계 무역 시장에서 국제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얼마전에는 대만달러의 환율이 8%가 급락하고 한국의 원화도 5~6% 하락했다. 아시아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급등에 경제 전문가들은 긴급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만이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데 더 큰 이유를 찾는다.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통화급등 사태를 두렵게 보는 건 80년대 초 미국과 G5 국

아시아 통화 폭등, 달러 관련 투자 경계해야

가 간에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 등이 대폭 절상되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아시아 통화 동반 급등 사태는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관세와 함께 약탈리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미 최대 흑자 국가인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바라고 있는데 중국은 위안화가 강해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고 중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위안화를 절상하는데 동의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과 교역규모가 큰 아시아 통화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미국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의 보험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이 헛지 차원에서 달러 자산을 미리 팔면서 이번의 환율 급락세가 연출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강달러 시대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었다.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일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어졌다.

과거 엔화 절상으로 인한 일본의 침몰을 지켜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절상에 대한 불안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

여난인플레이션을잡기 위해서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금리를인상할 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불안한 경제 상황때문에미국처럼금리를인상하지못했고 이는 강달러로 이어졌다.

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고 오히려 원화가 적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본의 침몰은 엔화 절상 이외에도 경기 불황을 두려워한 일본 정부의 지나친 저금리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된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번 통화급등 사태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 원화 가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의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일본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단 지금은 미국 국제 등 달러 관련 자산투자는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